

2023년 07월 3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8편 3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20(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1장 1~23절(구약p.789)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 내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삶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를 보장하데 이것이 바로 “행복추구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이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사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으며, 행복 추구 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헌법과 법, 그리고 강제성은 없어도 도덕과 규범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도덕과 규범, 법과 헌법을 뛰어넘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서슴없이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이 이제는 그 법을 고쳐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 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고난 성 정체성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심지어 음행의 일도 정당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하는 행위는 문제 될 것 없다며, 행복과 사랑이라는 그럴싸하게 포장한 음행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옴은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음행을 정죄 받을 행위로 알고 철저히 징계했습니다. 비단 이것은 음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옴의 진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원했던 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옴의 생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옴이 진술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음란한 일을 금해야 합니다.

- 옴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음란한 일을 철저히 경계하고 금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것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마5:28). 옴은 음행뿐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만일 간음을 범했다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도 좋다고 선언할 정도로 간음을 멀리했음을 강조합니다. 9~10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처럼 강한 어조로 말하는 옴은 음행이 재판에서 정죄 받을 죄요, 멸망을 부르는 불과 같이 심각한 죄악임을 알았기에 지금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옴은 음행의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것이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행의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범해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했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옴처럼 자신의 은밀한 행위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2. 거짓과 속임을 금해야 합니다.

- 옴은 자신이 허위와 속임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자신을 달아 보셔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또 옴은 만약 자신이 속임과 거짓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자신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고 진술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7~8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옴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미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라고 먹고 있었습니다(계21:8).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13장 21절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25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으며, 이사야 3장 11절에서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 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3.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자신의 삶 속에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옴은 자신이 고아나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못 본 체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6~21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는 고아의 아버지 노릇을 했고, 과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양털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악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섬기듯 그들을 섬겼습니다. 옴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악행을 행할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마25:40,45). 이처럼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옴과 같이 악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며 내가 말하고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분임을 깨달아 믿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음행과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응하며 오직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5(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폐 회 / 주기도문